

건강 상담실

▶ 이번호 해답자 / 가나다순

김진택 서울적십자병원 피부과장
강주원 가톨릭대 이비인후과 조교수

**얼굴에 여드름 같은것이
끓지도 않고 얼굴 전체에**

문 중학교 1년생 여자입니다. 약 2년전부터 얼굴(처음에는 주로 이마근처)에 여드름과 같은것이 나기시작하여 그동안 약방에서 약을 썼으나 효과가 없어 K대학부속병원등에서. 바르는약과 먹는약을 써어도 별효과가 없읍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되는지요.

최근에는 얼굴전체에 나고있읍니다. 그러나 끓거나 그렇지는않고 아프지도 않읍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박연송)

**비누로 자주 닦도록
손으로 짜는것은 안돼**

답 깨끗해야할 소녀의 안면에 피부발진이 생긴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주로 안면

에 좌창(여드름)이 생깁니다. 아마 소녀의 경우도 내용으로 보아 이경우인것 같습니다.

여드름은 기름기가 많이 배출되는 사람(대개 십대)에서 주로 얼굴 특히 뺨, 코, 이마, 턱, 목에 나타나며 면포를 형성하는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부신피질호르몬제 연고의 오용 내지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우선 비누로 자주 세면을 하는것이 좋으며 지방질을 제거하는 약물(Tetracycline)과 연고(Salicylic 또는 Resorcinol)를 복용 하거나 바르고 면포는 짜내야 하는데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독된 기계로 짜내야 되며 손으로 짜는것은 피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중 콜드크림 따사지름 기름기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금기이며 지방질및 합수탄소

히 초코렛, 조개, 아이스크림, 달걀, 우유, 버터, 베이컨, 튀김등을 삼가하는것이 여드름 치료및 예방에 좋은 식이요법이 됩니다.

(김진택)

**아침에 이유없이 코피
2·3년간 매달 4·5차례**

문 저는 17세의 고등학교 1학년의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간 비대한 편입니다. 필요한 운동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동안 아침에 한달에 4, 5차례 정도 코피가 이유없이 흐르는대 무슨병의 원인이 있는지요? 아닌지요?

(성동구 중곡동 심영배)

**원인에는 두가지가
국소적인 원인인듯**

답 코피의 원인을 크게 나누어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국소원인(예:코의 염증등)과 코엔 이상이 없지만 전신질환이 있을경우(예:혈우병 백혈병 빈혈 혈액질환 심장이상 동맥경화 신장등이 이상이 있을 경우)와 그외에 원인 불명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7세의 연령으로 봐서 전신적인것보다 국소적인원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구체적인것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강주원)

문에 여기에 깊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있으며 암을 될수록 일찍 발견해 내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또한 항시 단골 의사를 찾아 정기적으로

진찰과 지도를 받는것이 중요 하겠

(필자=경희대 보건소장·의박)